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열고 있는 '시의 정원:Poetic Paradise'이 오는 6월 4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시의 정원'서 만나는 문학과 미술

전남도립미술관, 6월4일까지 '시의 정원' 전...순천만정원박람회 기념 안유리·이매리·임흥순·리밍웨이 참여...정지아·임철우 작품 등 모티브

임철우의 소설 '백년여관',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고정희의 시 '오매, 미친년 오네', 그리고 에즈라 파운드 시. 문학과 미술이 어우러진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열고 있는 '시의 정원:Poetic Paradise'이 오는 6월4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시에 초대된 안유리·이매리·임흥순·리밍웨이 등 4명의 작가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해 색다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언어로 쏟아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안유리 작가의 영상 작품 '스틱스 심포니'는 루리하라 사다코,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마야 안젤루, 고정희라는 4명의 시인을 불러낸다. 안 작가는 10대 시절, 고정희 시인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아 친구들과 10주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인들은 히로시마 원폭, 나치와 소비에트, 흑인 인권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후, 그 심정을 담은 시를 발표한 이들이다. 오래 전 시인들이 써내려간 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현재'의 여성들이 낭송하며 다시 생명을 얻고, 화면의 물결속으로, 화염속으로, 하늘속으로 흘러간다. 테이트 모던,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리밍웨이 작가의 작품 '여행자' 연작은 이번에 구례를 담고 있다. 구례 여행의 동반자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다. 대만에서 살 당시 리밍웨이 작가의 가족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감시를 받았던 적이 있다.

정 작가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장소들로 리밍웨이를 데려갔다.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중앙초등학교, 아버지의 단골술집이 있던 오거리 등이다. 현장에서 두 사람은 각기 사진을 촬영했고, 그 결과물은 각각의 화면으로 보여진다. 대형 나무 상자에는 여행을 기념하는 물건이 담겨 있다. 관람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작품은 리밍웨이의 또 다른 작품 '편지 프로젝트'다. 누구나 작가가 설치해놓은 공간에 들어가 편지를 써볼 수 있으며 전시가 끝난 후 미술관측이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준다. 이 프로젝트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여전히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음을 깨달은 작가가 1년 반동안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편지를 쓴 데서 출발했다. 마치 유적 발굴 현장처럼 꾸며진 이매리 작가의 '지층의 시간'은 집터가 어느 날, 문화재 발굴 현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흔적을 탐색해본 작품이다. 강진 월남사지 옛 터가 옛터리인 작가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라진 집터와 마을, 천년 전 창건된 월남사 터에 켜켜이 쌓인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흔적을 들여다 본다. 작품의 재료는 석탄, 흑연, 금분 등으로 구약성서 창세기, 금강경, 에즈라 파운드의 시, 발 말린 노래 등이 히브리어,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 '위로공간'으로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는 완도 출신 임철우의 소설 '백년여관'에서 영감을 얻은 동명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소설은 4·3항쟁 희생자 가족, 광주항쟁 피해자, 1950년 보도

연맹원 학살 사건 희생자 등 굴곡의 한국 현대사가 잉태한 이들이 가상의 섬에 모여들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영상, 설치, 사진 등으로 구성된 임 작가의 작품은 그동안 작업을 해오며 만났던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대표 등 4명의 활동가를 초청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우리 차를 대접하고 감사, 용서, 사과를 주제로 한 글들이 낭송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리밍웨이의 '편지 프로젝트'

'한국 미술' '작품 감상' '작품 수집'

ACC 미술 인문강좌, 임근혜·이소영·정윤아 강연

광주비엔날레 개막과 맞물려 동시대 미술을 모티브로 한 인문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임근혜



이소영



정윤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동시대 문화트렌드를 반영한 3개의 미술 강좌를 마련한 것. 특히 올해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모토로 모든 강좌를 수료로 통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인문 강좌는 동시대 문화트렌드를 반영해 '미술' (4-6월), '케이팝 문화현상' (7-8월), '도시문화' (9-11월)를 키워드로 8차례 진행된다. 그 가운데 3개의 미술 강좌는 각각 '미술', '작품감상', '작품수집'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먼저, 26일 첫 강좌는 임근혜 아르코미술관장의 'K-컬처붐과 한국미술의 길'을 주제로 한 강의가 예정돼 있다. 영국에서 동시대 미술이론을 공부한 임 관장은 동시대 문화현상 속에서 한국미술과 문화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5월 31일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의 화제인물인 이소영 작가가 '미술에게 말을 걸다'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작가는 '일상, 작가, 이야기, 시

선, 취향'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어로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미술품 경매와 관련된 강의도 있다. 마지막 강좌는 오는 6월 28일 정윤아 크리스티 코리아 부사장이 '아시아 미술의 독자적 미학'을 주제로 동·서양의 차이를 톺아 본다. 정 부사장은 아시아와 서양 거장들의 예술세계를 모티브로 현대미술의 독자적인 미학을 고찰할 계획이다. 강좌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중계, 교육 영상 제작 등도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올해 인문강좌는 다른 해보다 문화트렌드에 맞춰 강의를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두려움을 이긴 어른과의 특별한 만남'

참배움터, 인문학 강좌...박맹수·구수환·임락경 강연

자신만의 고유한 나이테를 지니고 살아가는 어른을 만나는 강좌가 열린다. 지난 2018년부터 소통 공감의 장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는 (사)참배움터(참판 자아 참된 세상)가 진행하는 이야기 마당 '두려움을 이긴 어른과의 특별한 만남'이 비움박물관(광주 동구 제봉로 143-1)에서 모두 세 차례 개최된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번째 강연에서는 동학연구가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을 만난다. 강연 주제는 '다시 동학의 정신과 역사를 오늘의 거울에 비춰 봄'이다.



박맹수



임락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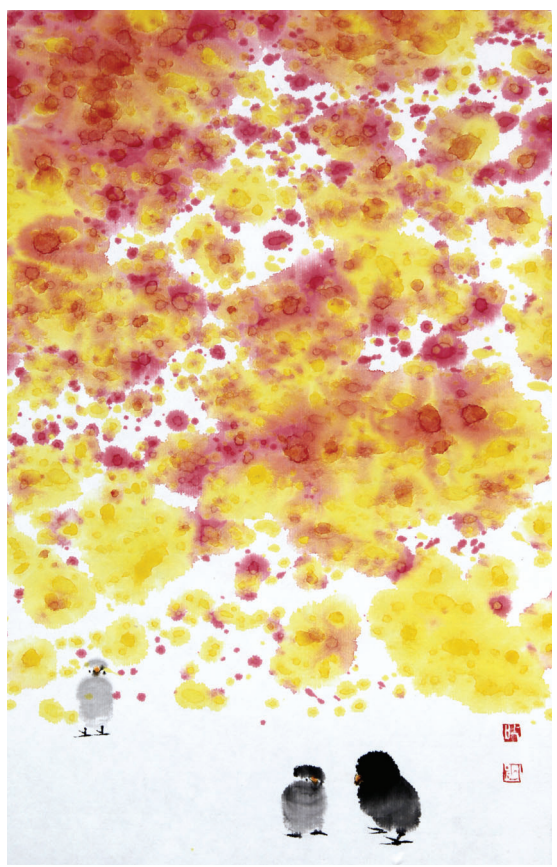
40년 동안 동학을 연구해온 그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사료 발굴을 하는 등 동학의 대중화와 계승에 앞장서 왔다. 특히 5·18 계엄군으로 참여한 역사적 속죄와 책무를 평생 동학 공부와 실천을 통해 이어왔다. 5월 14일에는 이태석 재단 구수환 이사장이 '섬김의 리더로 산 이태석 신부의 선한 영향력'을 주제로 강연한다. KBS '추적 60분' PD 출신으로 이태석 신부를 다룬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와 '나는 부활입니다'를 제작한 그는 이태석 신부의 섬김의 리더십과 공감 능력에 대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 강의는 오는 6월 11일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락경 목사가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중 목사 제자로 평생 농사 지으며 예수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17세에 최흥중 목사를 비롯해 이현필, 이세종, 유영도 선생 등을 만나 보필한 그는 특히 광주지역 성자로 불리는 최흥중 목사의 마지막 3년 삶을 함께 한 제자다. 그는 평생 장애인과 병든 이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농업의 삶을 이어오고 있다. 참가비 전체 강의 3만원. 참가신청은 전화나 문자(010-9601-8188)로 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먹의 농담과 번짐, 색의 다채로운 조합

'시원 박태후' 전, 29일까지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11일 서구문화센터서 작가와 대화

문인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서구문화센터가 진행하는 '시원 박태후' 전이 오는 29일까지 서구문화센터 갤러리와 로비에서 열린다. 대작 5점 등 2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잠새가 등장하는 작품 등 먹의 농담과 번짐, 색의 다채로운 조합이 인상적인 문인화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서구문화센터의 '놀러와!마재로 3번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1977년부터 치런 허의득 화백 문화에서 사군자를 배우기 시작한 박 화백은 1989년 '제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 초대작가가 됐다. 박 화백은 특히 수십년간 직접 기운 원림 '죽설현(竹雪軒)'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자연을 존중하는 한국식 정원을 지향한 '죽설현'은 그의 작업실이자 생활공간이다. 삶속에서 자연과 상생하려는 철학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작가는 '자연 속으로' 연작으로 여러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와 관련해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진행한다. 인문서구·사랑방아카데미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 51번째 강의로 마련된 이번 만남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구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시원 박태후의 삶



'자연속으로'

과 예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654-43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실버마이크' 참가자 모집

전남문화재단, 18일까지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오는 18일까지 '실버마이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세대의 문화참여와 사회 참여를 결합한 문화 활동 증진이 목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운영하게 된 전남문화재단은 전남을 비롯한 전북, 광주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며 3개 권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실버예술가 총 20팀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주간에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문화공간 및 다중 밀집지역에서 약 20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실버예술가들로 구성된 팀이며, 팀당 5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당 50만원~210만원의 공연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모집 분야는 대중음악·서양음악·한국음악·무용·복합장르 등 아와 및 실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이다. 개인 또는 팀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3분 이내 동영상과 지원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2805836@naver.com)로 제출하면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오디션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구문화원 '전국 애송시낭송대회'

6월 23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은 '제20회 전국 애송시낭송대회'를 오는 6월 23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애송시낭송대회는 아름다운 우리 말과 좋은 시낭송 문화의 보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다른 전국 규모 대회에서 최고상 수상자는 참여할 수 없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광주 서구정당장 및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되며 금상 1명은 상금 50만원과 한국문화원원 협회장상 및 시낭송가 인증서 등이 주어진다. 이밖에 은상 2명, 동상 10명, 장려상 20명에게도 각각 부상 등이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배정음악 없이 등단 시인

의 애송시 1편을 녹음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시 원문(시 제목 명시)을 이메일(seg417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서구문화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예선 통과자는 오는 5월 25일 서구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지된다. 정인서 원장은 "이번 애송시낭송은 문화향유 등의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애송시를 통해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원(062-681-4174)으로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